

1950~60년대 최일수 문학비평 연구

하 상 일*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세대론적 비평의식과 모더니즘 비판 |
| II. 전통론의 새로운 지평과 민족문학의 현
대화 방향 | IV. 맺음말 |

I. 머리말

지금까지 우리의 비평사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사이에 깊숙한 단절의식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전후비평을 타자화함으로써 4·19세대 비평의 문학사적 의의를 특별히 강조한 1960년대 비평가들의 세대론적 전략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또한 1960년대 비평지형은 ‘1965년’이라는 특정한 연대를 중심으로 양분되어 전반부는 1950년대의 특징을, 그리고 후반부는 1970년대 비평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함으로써, 사실상 1960년대 비평의 자리는 실종되고 말았던 우리 비평사의 관행도 문제가 있었다.¹⁾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 부산대학교 강사

1) 이러한 사실은 1960년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작가인 김승옥이 1965년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홍성원, 박태순, 이문구, 이청준 등의 소설가와 정현중, 조태일, 등의 시인, 그리고 조동일, 백낙청, 염무웅, 구중서, 김현, 김치수, 김병익, 김주연 등이 문단에 등장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관점이 되었

비평사 연구방향은 무엇보다도 1950년대-1960년대-1970년대로 이어지는 비평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1950년대 후반 분단극복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족문학을 한국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한 최일수²⁾와, 1960년대 초반 제일한인잡지 『한양』을 중심으로 활동한 장일우³⁾의 비평은 우리 비평사 연구에서 중요한

다. 특히 1966년 백낙청에 의해 창간된 『창작과비평』과 『산문시대』-『사계』-『68문학』을 거쳐 1970년 김현 등에 의해 창간된 『문학과지성』은 이후 한국문학을 양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학에콜로서의 위상을 획득함으로써,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후반에 이르는 소수의 문학담론들은 대부분 이 두 에콜의 문학담론속으로 편입되어 버리거나 이들의 전형에 의해 아예 배제되어 버림으로써 문학사의 단절을 초래하고 말았다.

- 2) 1924년 전남 목포 태생으로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현대문학과 민족의식」이 당선되면서 평단에 등장했다. 그는 목포상업에서 수학한 후 검정고시를 거쳐 1950년 조선대에 입학하였으나 전쟁 발발로 학업을 중단함으로써 동시대의 비평가들과는 달리 전문적인 문학수업을 받지 못하고 독학으로 문학공부를 했다. 1951년 『대한통신』, 1953년 『서울신문』을 거쳐 1955년부터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를 역임했으며, 세 권의 평론집 『현실의 문학』(형설출판사, 1976), 『민족문학신론』(동천사, 1983), 『분단혈기와 고루살기의 문학』(원방각, 1993)을 출간했고 1995년 타계했다. 그는 비평가로 등단하기 전 『호남공론』 창간호(1950년 1월)에 수필 「주검」을 발표했다. 『호남공론』은 이은상이 사장으로 있었던 『호남신문』의 문화부 기자 임병주가 1948년 창간한 문예종합지 『호남문화』가 재정난으로 중단되자 『호남신문』 기자였던 김남중이 인수하여 1950년 1월 광주에서 창간한 문예월간지이다. 최일수가 『호남공론』에 수필을 발표하게 된 것은 시조시인 이은상과의 관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직후 이은상은 『호남신문』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광주문단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생전에 최일수가 「노산문학과 민족사상」(『시조문학』, 1975년 12월)에서 그의 민족주의를 고평했던 점이나, 그의 두 번째 저서인 『민족운동총서 - 인문학에투쟁 편』(민족문화협회, 1981) 역시 이은상의 권유에 의해 쓰여졌다고 밝혔다(『민족문학신론』, 동천사, 1983, 「머리말」). 최일수의 비평의식의 형성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단적 교류에 대한 더욱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명원, 「최일수 문학비평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5 참조.
- 3) 『한양』의 대표적 평론가인 장일우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한양』의 전체 목차를 살펴보면, 1962년 3월 창간 이후 대략 1965년까지 장일우는 거의 고정적으로 문학비평을 발표하였다. 정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제일한인 평론가 김순남이 소설문학을 중심으로 비평활동을 전개했다면, 장일우는 시문학을 중심으로 비평을 발표하였다. 장일우, 김순남은 『한양』을 중심으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면서도 『현대문학』, 『자유문학』 등 국내 문예지에도 비평을 발표했고, 장백일, 김우중, 홍사중, 임중빈, 임현영, 구중서 등 국내 비평가들과도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최일수-장일우-『상황』 동인(임헌영, 구중서, 김병걸)-백낙청으로 이어지는 1960~70년대 민족문학론의 계보에 대한 재정립은 『창작과 비평』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현실주의 비평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중요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최일수, 장일우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1950년대 이후 우리 비평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여는 의미 있는 작업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우선 최일수의 비평을 대상으로 1950~60년대 우리 비평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비평사적 의미를 찾아내고자 한다.

그 동안 우리의 비평사 연구에서 최일수는 거의 묻혀 있다시피 한 비평가이다. 민족문학론 논의와 관련해 간헐적으로 그의 비평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의 비평적 입론 대부분이 1950년대 이후 민족문학론의 전개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⁴⁾ 이처럼 최일수가 우리의 비평사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비평활동이 조연현이 주재한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50년대 비평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재단되었다는 점⁵⁾, 서울 중심 강

교류하면서 당시 한국문단과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장일우의 비평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우리 비평사의 한 부분을 복원해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장일우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박수연, 「1960년대의 시적 리얼리티 논의 - 장일우의 『한양』지시평과 한국문단의 반응」, 『한국언어문학』 제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 하상일, 「1960년대 문학비평과 『한양』」, 『어문논집』 제50호, 민족어문학회, 2004년 10월. ; 김유중, 「장일수 문학비평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7집, 한국현대문학회 2005년 6월.

- 4)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심을 기울였던 최원식의 「민족문학론의 반성과 전망」(『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82)과 임헌영의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 한길사, 1986)에서도 최일수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5) 전후 한국의 보수적 문학인들이 결집한 매체는 1955년 창간하여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독보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현대문학』이었다. 당시 「자유문학」, 『문학예술』과 같은 문예지도 있었지만, 이는 『현대문학』의 대타적 역할을 한시적으로 했을 뿐이고, 『사상계』의 문학면 역시 『현대문학』에 비하면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당시 최일수는 자신의 진보적 문학관과는 무관하게 『현대문

단비평의 학맥을 전혀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⁶⁾, 민족문학론의 중심에 『창작과비평』을 위치시키는 우리 비평사의 주류론적 접근방식⁷⁾ 등에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평사 연구의 결락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최일수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서서히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⁸⁾ 본고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그의 비평의 총체적 복원과 재구성의 방향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학』을 중심으로 평론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조연현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므로(그의 첫 번째 평론집 『현실의 문학』의 「서문」을 조연현이 썼다) 그 역시 구세대 문학의 자장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이다.

- 6) 이에 대해서 구중서는 최일수의 문단 소외를 당시 한국평단의 인적 구조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동네 형성이 돼 가지고 울타리가 편협하게 지켜지는 현상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못하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 친한 동지들 속에 같이 있지 못하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소원하게 관심을 잘 안 두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구중서·강진호(대담), 『1960, 70년대와 민족문학』, 강진호 외 편,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2003, p.366.
- 7) 필자는 이러한 비평사의 관행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1960년대 현실주의 비평의 계보를 『한양』(1962)-『청맥』(1964)-『창작과비평』(1966)-『상황』(1969)으로 새롭게 정립한 바 있다.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05 참조.
- 8) 지금까지 논의된 최일수에 대한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한수영, 「최일수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10호, 1997.
 강경화, 『한국문학비평의 인식과 담론의 실현화 연구』, 태학사, 1999.
 이상갑, 「민족과 국가, 그리고 세계」, 『상허학보』 제9집, 깊은샘, 2002.
 정학재, 「최일수 문학비평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2.
 전승주, 「1950년대 한국 문학비평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23호, 2003.
 이나영, 「1950년대 최일수 민족문학론 연구」, 『문학과언어』 제25집, 문학과언어학회, 2003.
 이명원, 「최일수 문학비평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5.

II. 전통론의 새로운 지평과 민족문학의 현대화 방향

1. 1950년대 비평지형과 주체적 전통론

1950년대 문학지형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좌파적 성향을 지닌 문인들이 대거 월북함에 따라 김동리, 서정주, 조연현을 중심으로 한 우파 민족주의 문학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최일수의 비평의식은 이러한 보수적 민족문학론에 맞서는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있었다. 그는 민족문학의 당면과제로 분단상황의 극복을 무엇보다도 강조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민족적 리얼리즘’을 제기하였다. 즉 “민족문학의 현대적 정신은 민족의 자주정신의 모티프를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리얼리즘과 결합”⁹⁾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1950년대 비평 연구가 실존주의와 모더니즘에 대한 인식의 과잉으로 당대 현실의 문제를 전면화하는 데 상당히 소홀했다는 사실을 미루어볼 때, 이러한 그의 비평의식은 1950년대 우리 비평지형을 새롭게 읽어내는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비평의 두드러진 지향점은 전후의 피폐한 현실을 초극하는 ‘현대성’에 대한 인식에 있었다. 따라서 당시 신세대 비평가들 대부분은 전후 서구사회의 문명적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실존주의와 휴머니즘을 그대로 수용하여 한국문학의 현실에 적용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최일수에게 이러한 시도는 서구적 보편성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추상적 세계주의의 허상으로 비쳐질 뿐이었다. ‘한국적=전근대적, 서구적=근대적’이라는 공식 앞에서 우리의 자생적 전통은 ‘빈곤’과 ‘단절’로 폄하되는 극단적 전통단절론의 양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일수는 민족문학의 ‘현대화’ 방향으로 “서구의 현대문학의 비판적인 섭취와 전통의 올바른 계승을 통한 주체성의 확립”¹⁰⁾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내세운다. 이런 점에서 1950~60년대 전통론에 대한 이해는 최일수의

9) 최일수, 「현대문학과 민족의식」, 『조선일보』, 1955년 1월. ; 『민족문학신론』, 동천사, 1983, p.215. 이하 최일수의 평론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출전만 명시할 것임.

10) 「우리문학의 현대적 방향」, 『자유문학』, 1956년 12월. ; 『현실의 문학』, 형설출판사, 1976, p.190.

비평의식을 해명하는 중요한 토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최일수의 '전통'에 대한 입장은 한국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 서구 현대문학의 수용을 통한 새로운 문학 건설을 주장하는 전통부정론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는 '전통'을 현실적 성격과 구체적 역사에 기반을 둔 '주체적 창조정신'으로 인식함으로써 현재와 활발히 교섭하지 않는 전통은 죽은 전통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통계승론자들이 우리의 전통을 '은근과 끈기'(조운제), '맛과 멋'(이희승), '멋'(정병욱), '얼과 뉘'(이은상)과 같은 민족적 상징으로 환원시켜 의미화한 것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통으로 보지 않았다. 그의 전통에 대한 인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점은 '어떤' 전통인가 하는 문제에 있었으므로 '복고적' 전통과 '현실비판적' 전통을 구분했는데, 특히 '복고적' 전통의 예로 서정주와 청록파의 시를 들면서 전통론이 신비주의나 영원주의에 빠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다.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그는 서정주의 「춘향유문」과 박재삼의 「춘향이 마음」을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같은 제제를 다루었다 하더라도 서정주의 경우는 춘향을 통해 “지극히 보수적인 모랄”을 내세운 데 반해 박재삼은 “불의에 저항하는 사랑의 세계로 승화”¹¹⁾시켰다고 평가하면서 현대문학의 근본특질로 “저항정신”¹²⁾을 제시하였다.

우리문학의 전통은 향가에서 시조로 흐르는 절충적인 것보다는 춘향전 등의 평민문학에서 형성되어지는 주체성의 확립과 인간평등의 자유정신의 통일된 정신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략)

춘향전의 저항정신은 어디까지나 독자성과 인간의 평등정신에 있었다. 그러나 일제시대 근대문학은 이 저항정신을 한결 강하게 조성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압과 근대적 정관 때문에 춘향전 등의 전통을 이어받을 만한 역량을 상실해 버렸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춘향전 등의 전통을 어떻게 이어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런데 오늘 우리문학의 기본정신은 분단된 민족의 통일정신에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민족통일정신으로 하여금 춘향전이 지니는 저항정신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이 현대화의 구체적 방법은 춘향전 등이 지니는 민족정신을 기초로 하여

11) 「중착역의 기수」, 『현대문학』, 1964년 1~8월. ; 『현실의 문학』, 256-301쪽.

12) 「현대문학의 근본특질」, 『현대문학』, 1956년 12월~1957년 1월. ; 『현실의 문학』, 131-153쪽.

오늘 우리의 눈앞에 당면한 현실에 입각한 주체적인 위치에서 서구의 현대 문학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¹³⁾

최일수의 전통론은 ‘민족문학의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제기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쟁점화된다. 첫째는 “민족정신을 기초로 하여 오늘 우리의 눈앞에 당면한 현실에 입각”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주체적인 위치에서 서구의 현대문학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춘향전과 같은 평민문학의 내면에 흐르는 저항정신이 인간옹호의 평등정신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전통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족문학의 주체적 토대로 삼았다. 즉 춘향전은 일정한 작자가 없고 순전히 평민들 사이에서 발생되고 창작되고 성장함으로써 철저하게 평민문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며, 우리말로 된 문학으로서 한문학의 압박에 반항하면서 우리 문학의 독자성을 확립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춘향전은 “인간불평등 구조에 대한 ‘저항정신’이며, 한글표기를 통한 ‘민족적 형식’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평민문학이 갖는 민족문학으로서의 전통성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작품이라고 보았다.

2. 분단현실의 극복과 동남아의 민족문학

‘저항정신’과 ‘민족적 형식’을 전통의 특질로 설정하는 그의 전통론은 궁극적으로 당대의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⁴⁾ 그가 전통의 문제를 분단이라는 민족적 현실의 특수성으로 인식한 것도 서구적 전통의 답습이 아닌 한국의 역사적 현실에 기반을 둔 주체성의 관점을 정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현대에 있어서 민족의식의 문제는 곧 우리 문학의 고유성의 확립 문제와 일치된다. 현대적인 민족의식이 없고서는 우리 문학의 무엇이 고유한 것인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의 고유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점에 우리 민족이 서 있는 분단된 상황부터 의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분단된 상황을 먼저 의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13) 『우리 문학의 현대적 방향』, 위의 책, 206-207쪽.

14) 한수영, 앞의 논문, 165쪽.

가 없는 것이다. ‘우리’를 모르고 어찌 우리의 고유성을 운운할 수 있을 것인가.(중략)

오늘의 분단된 현실을 인식하지 않고 오늘과 단절된 박물관 유적 속에서 찾아낸 어떠한 것도 그것은 진보적인 고유성은 되지 못한다. 오늘에 이어지지 않은 전통이 어떻게 고유성이라 할 수 있겠는가.(중략) 우리 문학의 고유성은 그러한 반역사적인 운동 속에서 찾아지거나 확립될 수는 없다. 요는 우리 문학의 모든 유산이 오늘의 분단된 현실의 시점에서 재정리되고 재통일을 함으로써 참된 고유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확립된 우리의 고유성을 분단에서 통일로 지향하고 역사적 현실의 발전과정에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의 고유성은 분단외식 다시 말하면 통일로 향하는 그 정신풍토에서부터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¹⁵⁾

최일수의 비평의식은 궁극적으로 분단현실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전통의 의미는 분단현실의 극복과 통일지향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현대적인 문학정신이란 올바른 전통의 계승에 입각한 민족문학의 현대화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분단된 민족의 통일의식”¹⁶⁾에서 발현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결국 그가 말하는 “우리 문학의 고유성”은 분단현실의 역사적 특수성을 토대로 한 민족성의 올바른 구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우리 문학의 현대적 방향은 서구문학을 보편적 기준으로 설정한 맹목적 추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단극복이라는 우리의 역사적 과제에 충실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서구적 보편성의 기준에 맞춰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강조하는 당시 일각의 비평적 태도에 반기를 들면서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를 한국과 유사한 정치사회적 경험을 겪은 동아시아국가의 전통에서 찾고자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외래문학에 대한 비판적 토대와 민족고유성의 창조적 계기가 약화되었으나 반면에 민족간에 의식있는 지성인의 성장과 더불어 독특한 민족적인 저항의식이 질게 흐르고 있었다. 이러한 민족적 저항의식은 예속하에 있는 민족들의 필연적인 과정으로써 예속적 제약하에서 그것을 비판하게 되는 문화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자유의 갈망과 민족평등의 요구로써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 행동은 외래제약이 아시아 특유의 정체성과 겹쳐서

15) 「우리 문학의 고유성」, 『현실의 문학』, 79-80쪽.

16) 「우리 문학의 현대적 방향」, 앞의 책, 192쪽.

그 후진성을 여지없이 강요받은 그러한 저차원의 상황하에서 발현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옹호를 주제로 한 유우럽의 ‘레지스탕스’와는 근본적인 차질이 개재하고 있었다. 즉 유우럽은 인간의 자유문제가 주로 된 인간적 형성이요, 아시아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민족의 위치에서 찾아보려는 것이었다.¹⁷⁾

최일수는 서구문학의 현대화 방향과 우리 문학의 그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구가 인간의 ‘자유’ 문제가 주로 된 ‘국민’적 형성이라면 아시아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민족’의 위치에서 찾아보려 한다. 즉 문학의 창조적 계기가 서구에서는 개아 단위로 이루어진 인간적인 ‘휴머니티’에 있는 데 비하여 동남아문학은 인간의 기본적인 옹호가 민족적인 단위에서 향유되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문학은 인간옹호를 주제로 한 서구의 레지스탕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민족적 고유성을 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동남아문학이 서구문학에 비해 열등한 문학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서구문학이 ‘새로운 세계성’을 확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서구의 현대문학과 달리 세계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서구문학의 발전과정과 전혀 다른 역사적 변화를 겪은 우리의 경우에는 제3세계의 문학적 지평 안에서 민족문학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펼쳤던 것이다.

서구 민족문학이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물적 토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진행된 것인 반면에, 동남아의 민족문학은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형성된 민족 의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족문학 형성의 역사적 과정이 다르다. 따라서 그는 아시아 여러 민족의 문학은 오랜 세월을 전통적으로 중국 및 인도문학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었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서구문학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다는 역사적 공통성을 띠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러한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세계문학으로 진입하는 민족문학의 성격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결국 서구 현대문학의 사조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자율성이나 소외의 문제로 나아가는 반면, 동남아의 문학은 민족을 단위로 한 자주적인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해서 기본적으로 문학의 지향점이 다르며, 오히려 후자에 세계문학다운 성격이 더 강하게 부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¹⁸⁾

17) 『동남아의 민족문학』, 『시와비평』, 1956년 1월. ; 『현실의 문학』, 82쪽.

민족문학을 단위로 제각기 지니고 있는 민족적 특수성을 통하여 세계적인 교류와 연대성을 가지려고 하는 이른바 민족문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성격은 세계문화와 엄격한 차질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그 민족문학의 특수성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특정한 개인이 창작한 작품에 선행해서 민족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발생한 ‘모티브’에 창조의를 불어 넣음으로써 이것을 문학화하는 데 있는 것을 말한다.(중략)

문학에 있어서 민족적 고유성을 통하지 않고 그저 초월해 버린 일차원적인 문학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문학적인 고유한 특수성을 초월해 버리는 세계문학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중략)

따라서 세계문학이란(중략) 가공적으로 초월된 것이 아니라 민족의 개개의 문학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객관적인 내용의 세계적인 총화일 것이다.¹⁹⁾

그의 민족문학론은 1970년대 이후 민족문학 진영에서 제기되었던 ‘분단문학론’이나 ‘제3세계문학론’의 맹아적 단계를 드러내는, 우리 현실주의 문학비평의 중요한 전사(前史)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그는 문학의 세계성은 민족문학을 초월한 추상적인 것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문학이라는 고유한 형식에 있어서 세계적인 내용의 공통성을 지향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민족문학으로서의 특수성과 세계문학으로의 보편성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에 대한 최일수의 균형 잡힌 시각은 당시 분단현실로 인해 퇴색되어 버린 한국문학의 리얼리즘적 전통을 회복하고 이를 현실인식과 연계함으로써 냉전논리나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비평사적 의미를 지닌다.

Ⅲ. 세대론적 비평의식과 모더니즘 비판

1. 새로운 세대의 특수성과 비평의 현대성

18) 한수영, 앞의 논문, 158-160쪽.

19)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현대문학』, 1957년 12월~1958년 4월. ; 『현실의 문학』, 103-105쪽.

최일수의 비평의식은 구세대 비평과 차별되는 1950년대 신세대 비평의 세대론적 역할과 정체성 확립에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당대의 역사적 상황이 삶과 문학을 조건 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신세대 비평가들이 역사와 현실에 대한 비평적 감각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학에 있어서 신인의 위치는 일정한 역사적 시대의 특질을 지니고 주어진 세대를 배경으로 그 전망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전개되는 문학운동의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신인의 문학사적 위치를 결정하기보다는, 그가 발 딛고 서 있는 문학사의 필연적인 창조과정의 흐름을 보고 신인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인이란 “선배들의 작품세계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세대의 특수성을 지니고 신인이 진정 가져야 할 위치를 옳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은 반드시 일정한 시대적 특질을 배경으로 하였고 또 그러한 특질을 지니지 아니한 신인이란 진정한 의미에서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오늘 우리 젊은 신인들의 공통된 견해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의 신인의 위치가 문학사적인 위치에서보다도 문단적인 풍조에 의하여 가리워지고 문학적 세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참신성과 신입생적인 문단생리로서 그 위치가 대체되어지고 있는 느낌이였다.(중략)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오늘 이 세대에 등장한 신인들이 담당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밝힘으로써만이 진정 신인이 위치해야 할 곳이 분석되어지고 제시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6·25동란과 더불어 후반기에 들어선 오늘날 우리 문학에 있어서 신인의 위치란 무엇보다도 현대의식과 전통계승을 밀착시켜야 하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몹소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 특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의 불안에만 사로잡혀 고민만 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던 서구의 전반기적 절망과 분열의 세대를 넘어서야 했고 또한 민족문학의 새로운 전망과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개념을 지양하면서 전개되어야 하는 문학운동의 구체적인 문제와 그 방법이 제기되고 모색되어야만 했다.²⁰⁾

20) 『우리문학에 있어서 신인의 위치 - 민족문학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문학예술』, 1956년 2월, 116-117쪽.

그렇다면 최일수가 말하는 “새로운 세대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 의식은 앞서 살펴본 민족문학의 현대화 방향과 같은 맥락에 있다. 즉 그는 신 세대의 역할과 입장을 정리하면서 가장 우선적인 요건으로 분단현실의 역사적 상황을 제기했으며, 그 토대 위에서 진정한 신인들의 위치와 역할을 설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구세대의 비평의식과 신세대의 비평의식의 차이는 해방 세대와 동란세대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해방세대는 일제의 억압 속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이후 분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의 기저에는 절망과 불안과 허무 등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지만, 동란세대는 직접 전쟁의 폭격을 겪으면서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목격한 세대이므로 민족과 현실에 대해 더욱 투철한 문제의식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²¹⁾

이처럼 그의 세대론은 분단극복의 문제나 민족문학의 방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독특한 지점에서 제기되었다. 또한 당시 세대론을 주장했던 대부분의 논자들이 세대간의 단절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세대간의 유대를 강조했다. 그는 “1950년대의 오늘 우리 문학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세대와 지난 세대와의 사이에 이어질 수 없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 제각기 외곽으로 편향해 가고 있다”고 하면서, “세대와 세대간의 관계는 서로 반대되는 이질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또 반면에 서로 계승되는 동질적인 면이 함께 존재하고 있”²²⁾다는 중도적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세대론은 구세대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전통에 대한 부정을 통해 자신들의 비평적 입지를 새롭게 구축하려 했던 당대의 세대론적 비평 전략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비판적 계승’의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대론적 비평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최일수는 비평의 현대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21) 「반성하는 현대시」, 『현대문학』, 1957년 6-7월 ; 「동란의 세대」, 『문학예술』, 1957년 9월 참조.

22) 「문학상의 세대의식」, 『지성』, 1958년 9월.

비평은 비평 자체가 소설이나 시보다도 한결 침예하게 새로운 세대를 감각해야 하고 또 그 移向의 준비를 먼저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고 제시하여 남아버린 기능을 땀땀 지양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중략) 비평문학의 현대성은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전통을 비판적 위치에서 엄정하게 선택하는 기준을 밝히는 동시에 새로운 전통을 형성하면서 하나의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저가 되어야 할 문학정신의 창현에 집중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문학정신의 창현 속에서 서구의 행동적인 ‘휴머니티’를 비판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창작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믿는다. (중략) 현대비평의 기능은 문학적 방향의 창현자로서 또는 있어야 할 위치의 설정자로서 새로운 문학의 형성을 擔能해야 한다는 것이다.²³⁾

“문학적 방향의 창현자”, “있어야 할 위치의 설정자”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최일수는 비평의 현실주의적 기능과 역할을 무엇보다도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가 생각하는 비평의 현대성은, 역사적 지평 위에서의 세대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분단현실의 극복과 통일지향이라는 민족문학의 당면 과제를 쟁점화하는 데 있었다. 즉 그는 비평이란 역사적인 의의와 사회적인 가치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민족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야말로 비평의 현대성을 확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결국 최일수의 비평론에서 강조되는 것은 한 작가의 작품이나 작가가 처한 사회적·역사적 규정력과 해당 작품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시키는 의미를 유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2. 모더니즘의 역사성과 현실주의 비평정신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있는 최일수의 현실주의 비평정신을 통해 볼 때 당시 유행하던 모더니즘 문학론은 철저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순수문학 역시 “민족과 문학 그리고 인간과 사회를 서로 관련될 수 없는 이질적인 세계의 소산으로 단정하고 이른바 인간성을 민족이나 사회적인 생활로부터 격리시키면서 감각적인 생리의 세계로 내향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역사의 낙후성”²⁴⁾을 면치 못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결국 최

23) 「비평의 문학과 현대성」, 『현대문학』, 1956년 9월, 176쪽.

일수는 현실보다는 관념과 감각의 세계, 민족보다는 세계,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모더니스트들에게서는 역사적 전망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 내면몰입과 순수감각을 규제하는 강렬한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을 촉구하였다.²⁵⁾

시에 있어서 ‘모더니즘’의 본질은 그것이 서정시건 또는 ‘리얼리즘’의 시법이건 고사하고 전세대의 낡은 인습적인 관조풍의 시법과 그 靜觀的인 사고에 대한 극단적인 예술상의 반항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땃’이니 ‘땀’이니 하는 따위의 위선에 가득찬 낡은 문학적 인습과 구역질나는 사이버전통과 관습 등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기 위한 맹렬한 저항정신에 의한 표현인 것이다.

‘모더니스트’들의 이와 같은 시적 사고방식을 우리 문단에서만 보더라도 이미 그 기능이 정체되어 버렸다고 보는 전 세대의 풍월조나 또는 회고적인 감상조가 정평적인 위치만을 고수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무비판적인 인습 때문에 현대문학의 발전이 저해받고 있는 것이다.²⁶⁾

우리나라의 현대시를 비판해야 할 문제의 초점은 이와 같이 새로움을 짓는 현대주의 즉 ‘모더니즘’의 정신이 그 자체로써 진보적 경향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요인때문에 새로운 감각표현에만 쫓아 지성의 통일을 잃고 또는 그것에 편향하면서 진정 새로운 현실을 왜 파악 못하고 있는가의 점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불필요한 장식과 혼탁한 박학으로 언어질서와 민족성을 상실하고 있는 그 난해의 잔재가 어디에 내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사실들을 커다란 문학사적 흐름의 전체적 시야에서 작품 자체에 공통적으로 일관하는 감각적 영상을 하나하나 분석을 통하여 입증해야 하는 점에 있다고 본다.²⁷⁾

그는 시에 있어서 모더니즘의 본질은 “전세대의 낡은 인습적인 관조풍의 시

24) 『현대문학과 민족의식』, 앞의 책, 12쪽.

25) 이런 점에서 최일수는, “현대의 주지시가 너무나 내면편향의 주관에 사로잡혀 자아에 집념하고, 성급한 호흡과 감동과 강도만을 가진 채 아직 시어의 조잡성을 정리못하면서 공소한 관념의 초조와 불모속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덧없는 황야나 망망한 대해에 이성만이 외로이 표류하고 있는 그러한 무신념의 세계에 하나의 신념있는 새로운 세계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시의 순수감각 비판』, 『문학예술』, 1956년 5월. ; 『현실의 문학』, 254쪽.

26) 『모더니즘 백서』, 『자유문학』, 1959년 2월. ; 『현실의 문학』, 340쪽.

27) 『현대시와 언어개혁』, 『조선일보』, 1955년 3월 15일. ; 『현실의 문학』, 358쪽.

법과 그 靜觀的인 사고에 대한 극단적인 예술상의 반항정신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 모더니즘의 성격은 순수감각과 내면세계에 갇힌 현실적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현대시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할 과제는 “반항을 올바른 역사의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할 것과 그것에 이어지는 철저한 새세계의 창현자로서의 전위적 역할”²⁸⁾을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그는 저항정신, 비판정신, 새로움을 추구하는 정신에 모더니즘의 본질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견지함으로써, 모더니즘 자체에 대한 부정과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의 본질과 무관하게 구현된 1950년대 모더니즘의 실제적 양상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두었다. 결국 그의 모더니즘 비판은 “모더니즘의 본질에 입각한 모더니스트들에 대한 비판”²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김경린의 편한 『현대의 온도』³⁰⁾의 경우에는 관념편향과 실험적인 시도를 지양하려는 자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리 현대시사에 하나의 자아비판기의 문학이라는 위치를 차지하면서 현대시가 앞으로 올바른 길에서 보다 전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약속해 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현대시인들에게 주어져야 할 과제란 두말할 것도 없이 반항을 올바른 역사적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할 것과 그것에 이어지는 철저한 새세계의 창현자로서 전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이다.(중략)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제가 지각되어진 그러한 현대시의 올바른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 기반이 되는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자 의식적인 공동작업과 엄정한 자아비판이 젊은 세대의 시인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때 『엔솔로지』 『現代의 溫度』의 발간은 확실히 그 작품의 우열을 고사하고 일단 우리 현대시사에 하나의 자아비판기의 문학이라는 위치를 차지하면서 현대시가 앞으로 올바른 길에서 보다 전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

28) 『반성하는 현대시』, 앞의 책, 303쪽.

29) 허윤희, 『1950년대 모더니즘 시론의 시사적 이해』, 조건상 편, 『1950년대 문학의 이해』, 성균관대출판부, 1996, 245쪽.

30) 1957년 도시문화사에서 출간된 <DIAL> 동인의 사회집으로, 후반기 동인이었던 김경린, 김차영을 중심으로 김원태, 김정옥, 김호, 박태진, 이영일, 이철범, 이할 등의 신인들이 시를 발표하였다. 결국 이 사회집은 <신시론>과 <후반기> 동인의 모더니즘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다.(중략)

그것은 무엇보다도 도피에 가까운 관념으로의 편향과 「모더니즘」이 지니고 있는 이른바 초기의 실험적인 시도단계를 지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굳게 자각하고 있는 젊은 시인들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다는 데서 오는 것이다.³¹⁾

최일수는 『현대의 온도』에 수록된 시인들의 시적 경향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첫째, 모더니즘의 단계를 철저히 겪은 김경린, 김차영, 이활, 둘째, 리얼리즘의 현대적 방향을 모색하는 박태진, 셋째, 한국전쟁의 현실체험을 의식화한 이영일, 이철범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그는 이철범과 이영일의 시를 특별히 주목했는데, 이들의 시에는 한국전쟁과 분단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전후의 현실을 절망과 부조리의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창현하기 위한 역사적 행동이 필요한 시기로 파악한 최일수에게 이들의 시는 전시대의 모더니즘이 보여준 폐해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물론 최일수의 모더니즘에 대한 인식은 역사와 현실에 토대를 둔 그의 비평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미학적 측면을 간과한 편향성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³²⁾ 기법이나 형식보다는 정신을 강조하는 그의 비평의식을 생각할 때 이러한 비판이 전혀 유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여전히 모더니즘을 형식의 차원으로만 환원시켜 인식하려는 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는 점과, 최일수 비평의 현실주의적 성격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그의 모더니즘론을 무조건 미학성의 결여로 재단해 버린 데서 오는 더욱 편향적인 시각이 아닐 수 없다. 최일수가 생각하는 모더니즘의 형식은 독자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잘 짜여진 구조를 갖추는 데 있었으므로, 형식과 내용의 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변증법적 미학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그는 『현대의 온도』가 “아직도 관념의 잔흔이 씻기워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 비하여 그 의식의 강도나 자아의 객관적 관찰력이나

31) 「반성하는 현대시」, 앞의 책, 303-304쪽.

32) 강경화, 앞의 책, 267쪽.

또는 역사적 경험과 그 '시츄에이션'에 있어서 보다 커다란 차질을 지니고 비약했을 뿐만 아니라 무원칙한 반향으로부터 벗어나 현실에서 새로이 긍정되어야 할 역사적 필연성을 자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그 세계를 창현하기 위한 과감한 대결의 자세를 의젓하게 지니고 있"³³⁾다고 평가했다. 결국 그의 모더니즘 비판의 궁극적 방향은 미학성과 사회성의 조화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³⁴⁾

3. 순수문학과 실존주의문학론 비판

최일수는 미학성과 사회성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당시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1950년대 순수문학과 실존주의문학론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한다. 특히 순수문학론은 당시 문단의 주류였던 소위 '문협정통파'의 문학적 이념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비평의식은 상당히 논쟁적이었다. 그는 『문학과 양가주망』에서 '정치=비순수, 문학=순수'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문학이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수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좀더 그 자체를 신중히 생각하면 인간의 역사적 생활을 창조하지 못하고 그저 문학을 위한 문학이나 또는 문학의 독자적인 세계만을 편집(偏執)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러한 편집은 문학이 정치의 비수 순성만 보았지 정치로 인하여 인간의 정신사가 시대적 경험에 의해서 하나 둘씩 높은 위치로 쌓아 올려져 가고 있는 종합적인 문화상황을 잊어버리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종합적인 문화상황을 인식 못한 사람들은 이미 이에 반대되는 누구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려하지 않으며 나아가서는 문학이 정치를 계몽시켜야 할 정신상의 역능까지도 포기하면서 문학이란 정치와는 아주 판판으로 하나의 순수라는 이름으로 별세계를 마련하고 그곳에 다 '휴먼리즘'이라는 깃발을 꽂아 놓아버린 것이다.³⁵⁾

33) 『반성하는 현대시』, 앞의 책, 322쪽.

34) 이에 대해 이명원은, 미학적인 차원에서 혁신성과 사회성을 결합하라는 최일수의 주장은 어떤 측면에서는 일체 말기 김기림이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인문평론』, 1939년 10월)에서 당대의 모더니즘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현대시의 방향을 예견한 것과 거의 유사한 논리선상에서 제기된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이명원, 앞의 논문, 113쪽.

35) 『문학과 양가주망』, 『자유공론』, 1959년 1월, 509쪽.

최일수는 문학은 당대의 종합적인 문화상황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결코 당대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실로부터 문학의 분리, 즉 문학과 정치의 아주 단편이라고 판단하는 순수문학론의 태도는 ‘별세계’를 만들기 위한 추상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은 단지 담론에 대한 비판의 성격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당시 ‘문협정통파’들이 보였던 문학론적 차원에서의 ‘순수’ 주장과 문단권력을 둘러싼 ‘정치’ 논리에 대한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문단정치면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참여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작품상으로는 멀고 먼 관조의 세계에서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³⁶⁾ 문협정통파의 비순수성의 본질과 왜곡된 정치성에 대한 이해를 날카롭게 비판했던 것이다. 이러한 강도 높은 비판과 아울러 그는 고루한 봉건적 감성에 젖어있는 퇴행적인 문학경향을 문제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휴머니즘’이었다. 즉 그는 당대 문단에서 제기한 휴머니즘론이 대부분 센티멘털한 동정심에서 나온 구태의연한 정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방향에서 역사적 현실의 개조와 결합되는 ‘행동적 휴머니즘’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문제의식은 1960년대 우리 비평의 현실주의적 성격을 촉발시키는 아주 중요한 전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일수는 당시 유행하던 실존주의문학론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의식을 드러냈다.

원래 ‘야스퍼스’가 「현대의 정신적 상황」 속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성의 근저에는 반드시 전쟁과 혼란에 따르는 허무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리고 부조리한 모순이 횡행하는 환경에서는 의례 강박관념에서 나온 불안의식이 지배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시의 짧은 지식층에서만 볼 수 있는 이른바 창조적 기능이 정지되고 생활의 의식과 행동이 분열되어버린 그러한 세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었지 결코 인류전체 민족전체가 ‘유마니티’와 ‘데지스탕’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느끼는 전형적인 공통관념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생활의 기능이 영(零)에 까지 위축되어버린 우리나라의 수많은 도시 지식 청년들이 이른바 실존철학이 주장하는 인간정유

36) 「중착역의 기수」, 앞의 책, 269쪽.

(人間定有)의 호소를 허무적이며 자폭적인 상태에서 이를 영합하고 이미 체념기에 들어간 장년층에서는 이를 무관심해버렸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란을 전후하여 같은 환경이었지만 도시의 젊은 지식층에서만 자살자가 속출했다는 사실로 보아도 그들이 농촌과 일반 지식층에 비하여 그 자체가 허무적이며 실존적인지 이루 알 수 있는 노릇이다.³⁷⁾

이처럼 최일수는 실존주의문학이 도시 지식층의 변형적인 자기 옹호를 위한 소산물이라고 비판한다. 전쟁의 혼란을 겪은 자들이 허무와 권태를 해결하기 위한 말초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실존주의가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삶을 계획하기보다는 순간적 목표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새로운 민족문학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그의 비평의식을 통해 볼 때 현실을 절망과 부조리의 연속으로 파악하는 실존주의는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실존주의를 ‘니힐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니힐은 역사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니힐의 진정한 초극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⁸⁾ 결국 최일수는 전후의 불안과 허무의 원인은 전쟁과 분단상황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에 있으므로 이를 제거해야 새로운 문학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실존주의에 의탁하여 세계적 보편성에 함몰되어 있었던 당시의 지식인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염두에 둘 때 아주 소중한 통찰이 아닐 수 없다.

IV. 맺음말

최일수의 비평은 김동리로 대표되는 보수적 민족문학론을 비판하면서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방향을 새롭게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1950~60년대 우리 비평

37) 「실존주의의 총화적 비판」, 『경향신문』, 1955년 4월 13~15일.

38) 「니힐의 본질과 초극정신」, 『현대문학』, 1955년 10월.

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당시 민족문학의 과제가 전통의 올바른 계승과 외래문학에 대한 비판적인 섭취에 있다고 보고, 그 토대 위에서 이념대립과 분단현실을 초극하는 통일지향의 새로운 민족문학론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의 민족문학론의 방향은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 위에 놓여 있었고, 서구적 보편성을 민족문학의 현대화 방향으로 삼기보다는 한국과 유사한 정치적·사회적 경험을 한 동남아문학의 전통에서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이는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를 주체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리하고자 한 것으로 70년대 이후 제기된 분단문학론이나 제3세계문학론의 맹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최일수의 비평의식은 세대론, 전통론, 민족문학론 등 1950~60년대 우리 비평지형의 총체적 성격을 선취하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의 비평은 우리 비평사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지점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의 비평의식은 구세대와의 뚜렷한 단절의식에 바탕을 두고 비평활동을 전개한 신세대 비평가들과는 달리 ‘비판적 계승’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평단의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양쪽 모두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적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즉 ‘화전민의식’으로 구세대 비평과의 철저한 단절을 외쳤던 이어령은 최일수가 “당시 조연현의 대변인 같은 글을 많이 쓰고 있어서 세대의식이 없는 ‘새끼우상’이라고 불렀”³⁹⁾다고 회고하고 있으며, 4·19세대의 현실주의 비평가인 염무웅은 최일수의 비평에 대해 “참 답답하고 재미가 없”⁴⁰⁾어 당시 이어령과 유종호에 더욱 신뢰감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일수는 당대의 쟁쟁한 비평가들과는 달리 서울 중심의 학맥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으므로 특정 예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던 문단지형으로부터도 점점 유리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50~60년대 최일수 비평의 소외는 담론만으로는 해명될 수 없는 문단의 역학관계 또는 문단정치학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앞으로 최일수 비평 연구의 방향은 당시 특정 비평

39) 이상갑·이어령(대담), 『전후문학과 우상의 파괴』, 강진호 외 편, 앞의 책, 87-88쪽.

40) 김운태·염무웅(대담), 『1960년대와 한국문학』, 강진호 외 편, 앞의 책, 408쪽.

에콜로 조직화된 당시 문단상황에 대한 실증적 문제제기와 아울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와서 민족문학론의 계보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최일수의 비평은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민족문학론과 전통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그의 비평의 총체적 성격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그의 비평이 현실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모더니즘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1950~60년대 우리 비평의 주요 쟁점으로 모더니즘론, 민족문학론, 실존주의문학론, 세대론, 전통론 등을 언급할 때, 최일수의 비평은 이 모든 비평적 쟁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향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최일수 비평 연구의 방향은 모더니즘과 실존주의에 대한 그의 비평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는 1950~60년대 한국문학비평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비평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임에 틀림없다.

주제어 : 최일수, 민족문학, 전통, 모더니즘, 순수문학, 현실주의비평, 현대성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최일수, 『현실의 문학』, 형설출판사, 1976.
_____, 『민족문학신론』, 동천사, 1983.
_____, 『분단혈기와 고루살기』, 원방각, 1993.
_____, 「현대문학과 민족의식」, 『조선일보』, 1955년 1월.
_____, 「현대시와 언어개혁」, 『조선일보』, 1955년 3월 15일.
_____, 「실존주의의 총화적 비판」, 『경향신문』, 1955년 4월 13일~15일.
_____, 「니힐의 본질과 초극정신」, 『현대문학』, 1955년 10월.
_____, 「동남아의 민족문학」, 『시와비평』, 1956년 1월.
_____, 「우리문학에 있어서 신인의 위치 - 민족문학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문학예술』, 1956년 2월.
_____, 「현대시의 순수감각 비판」, 『문학예술』, 1956년 5월.
_____, 「비평의 문학성과 현대성」, 『현대문학』, 1956년 9월.
_____, 「우리문학의 현대적 방향」, 『자유문학』, 1956년 12월.
_____, 「현대문학의 근본특질」, 『현대문학』, 1956년 12월~1957년 1월.
_____, 「반성하는 현대시」, 『현대문학』, 1957년 6월~7월.
_____, 「동란의 세대」, 『문학예술』, 1957년 9월.
_____,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현대문학』, 1957년 12월~1958년 4월.
_____, 「문학상의 세대의식」, 『지성』, 1958년 9월.
_____, 「문학과 양가주망」, 『자유공론』, 1959년 1월.
_____, 「모더니즘 백서」, 『자유문학』, 1959년 2월.
_____, 「종착역의 기수」, 『현대문학』, 1964년 1~8월.

2. 단행본 및 논문(평론)

- 강경화, 『한국문학비평의 인식과 담론의 실현화 연구』, 태학사, 1999.
강진호 외 편,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2003.
이나영, 「1950년대 최일수 민족문학론 연구」, 『문학과언어』 제25집, 문학과언어

학회, 2003.

이명원, 『최일수 문학비평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5.

전승주, 『1950년대 한국 문학비평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23호, 2003.

정학재, 『최일수 문학비평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2.

하상일, 『195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05.

한수영, 『최일수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10호, 2000.

허윤희, 『1950년대 모더니즘 시론의 시사적 이해』, 조건상 편, 『1950년대 문학의 이해』, 성균관대출판부, 1996.

<Abstract>

A Study on Choi Il-Soo's Literary Criticism in the 1950~1960's

Ha, Sang-Il

This paper is an examination of Choi Il-Soo's Literary Criticism in the 1950~1960's. This paper classified Choi Il-Soo's Criticism aspect of Literary Generation, Culture Tradition, National Literature.

1. About the Literary Generation, Choi Il-Soo used discourse strategy of inclusion and difference, distinct from other critic' strategy of exclusion and enhancement.

2. About the Culture Tradition, Choi Il-Soo surpassed the strategy of concealment by the tradition negationists and abstract and ideal discourse by the tradition accessionist.

3. About the National Literature, Choi Il-Soo's discourse re-defined the nationality through the historical view. And Choi Il-Soo's National Literature were continued to the concern about the third world's literature. And Choi Il-Soo's National realism were on the basis of the confidence in the progress of history and he had the intention to the methods of creation.

Finally, We could understand that Choi Il-Soo's Literary Criticism were superior to others' in the field of 1950's Literary Criticism about the aspect in the tradition and National Literature and it could be more clear when compared with other critical subject.

Key Words : Choi Il-Soo, National Literatur, Tradition, Modernism, Pure Literature, Realistic Criticism, Modernity